

19세기 말 ‘부민(富民)’ 개념 의미장의 변화 양상*

—개항기 신문 매체를 중심으로—

문 경 득**

- I. 서론
- II. 개항 이전 ‘부민’ 개념의 의미장
- III.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
- IV. 결론

【국문초록】

‘부민(富民)’이라는 개념은 ‘백성을 부유하게’라는 뜻과 ‘부유한 백성’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본 논문은 개념사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부민’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였다.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부민 개념은 도덕적 교화라는 이상적 목표와 안민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 유교의 경세 담론 내에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감세와 절용이었다. ‘부유한 백성’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 구휼 등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조력자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먼저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치자’는 부민 담론의 영향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8S1A6A3A01045347)이다. 2020년 10월 22일 『유교윤리관과 자본주의 경제담론』이라는 주제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와 한국해석학회, 국립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하였다.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연구교수(kd2003@jj.ac.kr)

아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 부민은 권력자의 수탈과 도적떼의 약탈에 의한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었다.

반면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은 탈유교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백성을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친다’는 논리는 역전되어 ‘가르쳐야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며, 가르쳐야 하는 내용 또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서구의 지식과 학문으로 변화했다. 또한 부민의 지향조차도 정덕, 안민, 인정, 왕도정치와 같은 유교적 목표가 나라의 부강함이라는 현실적 목표로 대체되었다. 유교의 경세론과 도덕윤리에서 끌어온 언표는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개항기 부민층의 지위나 현실도 전통적 부민층과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서구의 자본가가 부민으로 소개되고 경제주체로서 부민이 주목되었다. 또한 부민층은 개항과 이후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대변화에 적응하려는 양상도 관찰된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논의와 ‘부유한 백성’에 대한 취급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미장 안에서 부민의 목적과 수단, 논리구조 등이 근대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교적 언표를 활용해 나라의 부강을 추구하자는 논의를 합리화·정당화하고 있었다.

주제어 : 개념사, 유교, 경세론, 경제제민, 탈유교화

I. 서론

유교의 경세론은 정덕이용후생(正德利用厚生), 경제제민(經世濟民), 인정(仁政), 왕도정치(王道政治) 등을 목표로 삼는다. 또한 덕을 근본으로 두고 재화를 말단으로 두었으나, 백성을 중시하는 민본의 이념이 있었으므로 언제나 경제와 민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렇기에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안민[安民]’은 경세론의 출발점이자 지향점이었다.¹ ‘백성을 부유하게’라는 뜻의 부민(富民) 개념은 유교의 경세론에서 백성의 교화와 이상적 국가 운영

을 위한 조건이자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부민'은 유교의 '경세제민' 담론의 의미장 안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근대국가와의 충돌은 동아시아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유교의 경세론도 서구의 'economics'와 만나 '경제학'이 되었다. 다만 당장 '경제'라는 단어가 경세제민 혹은 경국제세(經國濟世)의 준말인 것처럼, 동아시아 국가는 유교의 경세론을 기반으로 서구의 근대 경제학을 수용하였다.² 하지만 근대 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수용되면서 경제 개념에서 유교의 경세론이 배제되었으며, 부민이란 개념도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따라서 '부민' 개념의 변용과 소멸은 직접적으로는 경세론이 경제학을 만난 이후 변화해가는 지식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단초이며, 간접적으로는 유교문화가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던 전통사회가 근대 자본주의를 만나면서 변화해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민이라는 개념에는 '부유한 백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실제 사료에서는 오히려 이 '부유한 백성'으로서의 부민 개념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먼저 이들에 대한 분석은 '백성을 부유하게' 한 다음에 '백성을 가르칠 것(敎民)'을 주장한 유교의 경세론이 19세기에는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나아가 이들 '부민'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 개항 이후 서구와 접촉하여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회변화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중의적인 '부민' 개념이 개항 이후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9세기 말의 지식체계와 사회변화 양상을 추적하고자, 개념을 정의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으로 보는 개념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개념사는 과거의 행위자가 경험한 '현재'를 표현하고 있는 사료의 언어(과거의 현재)와 우리가 경험한 '과거'를 표현하고 있는 현재의 언어(현재

1 이현창(2018), 「문호개방 이전 동아시아의 경세제민학(經世濟民學)」, 『한국실학연구』 36, 32쪽.

2 이현창(2015), 『경제·경제학』, 도서출판 소화, 121~129쪽.

의 과거) 사이의 차이점을 밝혀, 과거 행위자가 구성한 역사적 실재와 현재 역사가가 만든 역사적 실재를 의미있게 소통시키려는 연구방법론이다.³

이러한 개념사도 코젤렉이 시도한 기본개념의 구조사 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Reichardt)의 '사회사적 의미론'에 입각하여 개념과 사회적 콘텍스트의 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사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이 방법론은 코젤렉의 개념사 연구가 지식인들과 대 사상가의 텍스트에 치중하는 "정상에서 정상으로의 이동"이라는 종래의 이념사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점을 비판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상용어의 연구를 통해서야 비로소 개념의 사회적 대표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코젤렉의 연구에서 무시되었던 다양한 사료들까지 취급하고 있다.

또한 개념의 구체적 수용과정과 그것의 사회적 반향과 차용의 과정을 꼼꼼히 추적하기 위해 어떤 개념이 특정 텍스트 속에 갖는 '의미장'을 구조화시키고 있다. 즉, 해당 개념과 관련된 모든 단어의 사용 범례를 네 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때 '계열관계'의 장에는 개념을 직접 정의하는 단어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배치되며, '통합관계'의 장에는 개념들을 내용적으로 채우고 설명하고 특징짓는 단어들로 구성된다. '기능적 반의어'에는 모든 체계적 반대개념이, 역사적 사실에는 역사적 사건, 인물, 원인 등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이 배치된다. 이렇게 배치한 개념의 의미장을 시간의 흐름에 구성해보면 개념의 변화를 가시화할 수 있다.⁴

3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27~31쪽.

4 나인호(2011), 앞의 책, 82~92쪽. 다만 이러한 롤프 라이하르트의 개념사 연구는 언어통계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념과 관련된 모든 단어 및 용례들의 등장 빈도수까지 파악하는 방법론이다. 즉, 개념의 분석에 앞서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 이미 방대한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어통계학적 방법을 적용할 정도로 사료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일을 연구자 개인의 제한된 시간과 역량 안에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부민 개념의 의미장 내

이러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자료는 『한성순보』, 『한성주보』, 『독립신문』, 『제국신문』, 『황성신문』, 『매일신문』 등 개항기의 신문자료이다. 다만 1880년대의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와 1890년대의 『독립신문』 외 여러 개항기 신문 사이에는 시기적으로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비교할 대상인 개항기 이전의 부민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부민' 개념이 등장하는 사료를 분석하였다.⁵

시기적으로는 19세기로 한정하여 1900년까지의 신문 기사와 실록 기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다만 19세기(1801~1900)라는 시대구분보다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1898년에 독립협회 해산 이후부터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통감부 설치까지 고려하여, 시기적 하한을 1904년이나 1905년까지 설정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항 이전과 개항 이후인 1880년대 중반, 그리고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이 진행된 시기인 1890년대 말, 정확히는 1896~1899년이라는 세 시점의 의미장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통시적인 변화과정을 분석하기보다는 변화가 두드러지는 특정 시점의 단면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백성을 부유하게'라는 뜻과 '부유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진 중의적인 부민 개념의 의미장이 개항 이전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개항 이후에는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살펴보았다.⁶

에서 등장하는 유관 단어들에 개항을 전후로 하여 어떻게 재배치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5 『조선왕조실록』 중 『고종실록』은 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1935년에 간행되어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개항 이전의 기사는 『승정원일기』 및 『일성록』과 각 사(司)의 등록(騰錄)류와 여러 문집류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원사료에 충실하게 편찬되었다. 그러므로 객관적 기록의 정리나 자료 제공이라는 면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 또한 개항 이후에는 각국과의 여러 약장 등의 사료가 수록되어 있고, 갑오경장 이후의 조서·칙령·법률·각령(閣令)·부령(部令)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한국근대사의 주요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왕대별 해제 : 제26대 고종실록” <http://sillok.history.go.kr/intro/haejae.do> (검색일 : 2020. 11.30)).

II. 개항 이전 ‘부민’ 개념의 의미장

1. 유교적 부민 개념

‘부민’이라는 표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관자』부터이지만, 이미 공자 이전부터 경세론이 존재했고, 이러한 담론 내에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경』 「대우모(大禹謨)」에는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여기서 ‘이용후생’은 “여러 기물과 유통수단 등을 편하고 이롭게 활용하여 의식주 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해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이다.⁷ 즉, 재물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목적을 위한 선행단계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도 자공이 정사에 관해 물었을 때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을 충분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⁸라고 했다. 즉, 위정자는 먼저 백성에게 물질적인 이로움을 충분히 주고, 군대를 강건하게 하여 국방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백성의 신뢰를 받으라고 했다.⁹ 그렇기에 염유가 공자에게 “이미 백성들이 많으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하고 물었을 때,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답하고, “이미 부유해지면 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라고 묻자 “가르쳐야 한다.”라고 대답했다.¹⁰

맹자도 이를 계승해 왕도정치를 주장하면서, 먼저 백성들의 물질적 토대

6 ‘부민’이라는 개념이 중의적이라 ‘부민’이라는 표현만으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백성을 부유하게’라는 뜻은 ‘부민론(富民論)’이라는 용어로, ‘부유한 백성’이라는 뜻은 ‘부민층(富民層)’이라는 용어로 서술하였다.

7 임현규(2013), 『소유의 욕망, 이(利)란 무엇인가—유가 경전에서 배운다』, 글항아리, 33쪽.

8 『논어』 「인연(顔淵)」, “子貢問政 子曰 足食 足兵 民信之矣.”

9 임현규(2013), 앞의 책, 75쪽.

10 『논어』 「자로」, “子適衛 冉有僕 子曰 庶矣哉 冉有曰 既庶矣 又何加焉 曰富之 曰既富矣 又何加焉 曰教之.”

[恒産]을 안정시켜 백성들을 보호 양육하고[保民, 養民], 그 다음에 학교에서 효제를 가르쳐야[教民孝悌] 함을 역설했다.

백성에게 몇몇한 생업[恒産]이 없으면 몇몇한 마음[恒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주어 반드시 위로는 족히 부모를 섬길만하고, 아래로는 족히 처자를 먹일 만하게 하여, 풍년에는 1년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죽음을 면하게 하니, 그런 뒤에야 백성들을 선하게 하였으니 그런 이유로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기 쉬운 것입니다.¹¹

즉, 먼저 백성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가르쳐서 선하게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논어』와 『맹자』에 '부민'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이미 공자부터 '백성을 부유하게 하고[富民]' 그 뒤에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教民]'라고 주장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² 종합해보면 '부민'의 의미장 내에서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대학』에 나오는 '덕은 근본이요 재물은 말단이다[德者 本也 財者 末也]'처럼 말단이자 수단이었으며, 그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덕(正德)과 '효제(孝悌)' 등의 유교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후 『순자』나 『관자』, 『회남자』 등, 전국시대 이후 전한시기까지의 문헌에서도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보인다. 『순자』에서 '유민(裕民)'이라고 표현하면서 부국을 위해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관자』에서는 직접적으로 '富民'이라

11 『맹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 是故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

12 안외순(2016), 「『논어(論語)』에 나타난 정치 관념」, 『동양문화연구』 24, 32~35쪽.

13 황규선(1995), 『荀子 禮思想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141~142쪽 ; 안용진(2008), 「荀子の 富國論과 租稅觀 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33, 170~171쪽, 187~188쪽.

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이 책들에서 지향하는 목표는 부국강병이므로 교화를 추구한 유교와는 다르다. 그러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부민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¹⁴ 이후 『회남자』에서도 민본적 관점에서 안민(安民)을 위해 백성에게 이롭게(利民), 백성을 부유하게 할 것(富民)을 주장하고 있다.¹⁵

이후 중국과 조선의 경제학은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¹⁶ 의미장 내의 구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송대에는 성리학이 성립하였는데, 당과 송을 거치면서 시장이 성장한 환경으로 위협받는 정통 유학이념을 공고화하기 위해 호혜와 재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논리적으로 심화한 결과물이다. 또한 아시아 북방의 위협에 대항하여 중화국가를 수호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중요하게 작용하여 만들어졌다.¹⁷

구체적으로 주자는 흠민(恤民)을 핵심 경제사상으로 삼아 조세의 경감과 균평화, 세출 절약, 그리고 황정(荒政)과 사창(社倉)이라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념은 후대 중국과 조선에서 유교 위정자의 모범적인 안민(安民)의 경제관에 큰 영향을 주었다.¹⁸ 다만 청나라가 세워지면서 ‘경제치용학(經世致用學)’이 등장하였으나 청나라가 안정되면서 소멸하고 고증학으로 이어졌다. 또한 과거시험에서 여전히 주자학이 주류학풍이었으므로 경제제민론

14 김태명(2008), 「관자의 정치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5-3(11), 90~92쪽; 윤대식(2013), 「예의(禮義)와 염치(廉恥)의 정치-『管子』에 내포된 예법(禮法) 검토」, 『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1, 42쪽, 56~57쪽; 윤대식(2017), 「관중(管仲)의 국가책무 기획-온정과 통제의 경계 짓기」, 『공자학』 32, 111쪽, 114쪽; 오청식(2018), 「『서경(書經)』의 ‘천명(天命)’과 『관자(管子)』의 ‘무시(務時)’의 상관관계 연구」, 『동양학』 73, 14~15쪽.

15 박문현(2009), 「회남자(淮南子)의 무위의 정치사상」, 『통일전략』 9-3, 262~269쪽.

16 자세한 내용은 이현창(2003), 「유학 경제사상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시론」, 『국학연구』 3, 240~253쪽; 이현창(2018), 앞의 논문, 34~70쪽 참조.

17 이현창(2003), 앞의 논문, 242~243쪽.

18 이현창(2018), 앞의 논문, 41쪽.

자체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¹⁹

조선의 경우, 여말선초기에 수기의 성리 철학과 치인의 정치론인 경세제민학이 균형있게 발전하였고 조선초기에는 고려후기 정치와 제도의 문란을 혁신해야 했으므로 주로 경세제민학이 학문 발달을 주도하였다. 조준의 전제개혁론, 정도전의 『조선경국전』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²⁰ 이황과 이이를 거치면서는 도학정치를 위한 수기와 치인의 원리·이념·방법을 집약시켰다. 그 결과 군주의 수기치인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대동법을 선구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이후 유성룡과 김육은 안민부국론을 추구하였다. 특히 김육이 제시한 대동법은 당파를 초월한 조선시대 최대 개혁이었다. 그러나 안민을 더욱 중시하는 사림의 학풍은 이러한 안민부국론을 공리(功利)라고 부정적으로 보면서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조선후기에는 유형원이나 유수원, 박제가, 정약용 등을 거치면서 경세론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²¹

그러나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부민 개념의 의미장 자체가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즉, 부민 개념은 도덕적 교화라는 이상적 목표와 안민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 경세 담론 내에 있었으며, 부민의 구체적인 방법론은 감세와 절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전통시대에는 농업을 아무리 발달시키려 해도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감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출을 줄이는 '절용'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²²

실제로 개항 이후이기는 하지만 1886년 1월 16일에 호군 이돈하(李敦夏)가 올린 상소에서도 여전히 유교적 부민 개념을 확인할 수 있다.²³ 이돈하는

19 이현창(2018), 앞의 논문, 43~44쪽.

20 이현창(2018), 앞의 논문, 47~49쪽.

21 이현창(2018), 앞의 논문, 50~70쪽.

22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299~301쪽.

23 편의적으로 1876년 개항이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지만, 부민 개념의 의미장이 개항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변화했는지는 광범위한 자료

상소에서 임금의 정사를 잘하는 요령은 선대 임금을 본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덟 가지 방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곤궁한 백성을 돌봐주는 것(恤民窮)’에 대해 “우리 영조 대왕(英祖大王)이 세손(世孫=정조)에게 하교하기를,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무익한 일로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라는 문답을 인용하였다. 그러면서 이돈하는 현재 백성들이 오랫동안 병을 앓은 사람처럼 약해져 있으니 먼저 은혜를 베풀어 백성들을 양육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데 힘을 쓸 것을 주장했다.²⁴

〈표 1〉 『고종실록』 중 이돈하 상소에 나오는 ‘유교적 부민’ 개념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人君致治之要, 捨祖宗, 治道, 明聖學, 教胄子, 用人才, 立政令, 興儒化, 修戎務, 崇儉約	恤民窮, 富民, 先施蠲恤, 養民安民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護軍 李敦夏, 상소, 영조, 정조	無益之事, 奪民時, 久病羸弱之人, 元氣必耗

그 의미장을 분석해보면 통합관계에서는 구휼(救恤)을 통해 양민(養民)·안민(安民)하는 것이 부민이라고 보고 있다. 계열관계에서는 경세론에 기반하여 군주의 수기치인론을 긍정하는 “임금의 학문을 밝히는 것[明聖學]”, “세자(世子)를 가르치는 것[教胄子]”, “인재를 등용하는 것[用人才]”, “정령을 세우

검토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다만 개항이라는 사건 직후에 바로 급격하게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시기보다는 유형에 중점을 두고 1886년의 사료를 인용하였다. 실제로 동도서기를 주장했던 김윤식의 경우, 1862년 시점에서 균분을 중시했으며, 1881년에 영선사가 되어 청나라로 가던 시점에서도 절용을 강조하고 있었다. 1882년에 중국에서 번역된 경제학 서적과 청국의 양무관료들과 접촉하면서야 비로소 절용론에서 부국론으로 사고가 변화해갔다(김성배(2009), 앞의 책, 299~304쪽).

24 『고종실록』 23년(1886) 1월 16일. 「호군 이돈하가 상소를 올린다. “... 我英宗大王, 教王世孫曰: ‘何如可以富民?’ 對曰: ‘不爲無益之事, 以奪民時也.’ 顧今事勢, 如久病羸弱之人, 再有所傷, 元氣必耗. 伏願先施蠲恤, 以養民安民爲務. ...”

는 것[立政畧], “유학의 교화를 장려하는 것[興儒化], “군사에 관한 일을 잘 정비하는 것[修戎務], “검약을 숭상하는 것[崇儉約]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 기능적 반의어에서 부민의 반대되는 뜻으로 등장한 표현들도 백성을 무익한 일로 괴롭혀 병에 걸린 것처럼 원기를 쇠하게 하는 것에 관한 표현들이다(표 1). 즉, 19세기 중반까지도 부민 개념은 유교의 경세론 안에 포함 되어 있었으며 안민과 교화라는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하고 있었다.²⁵

2. 전통적 부민층

개항 이전에 '부유한 백성'이라는 뜻의 부민 개념은 『조선왕조실록』에서 1806년(순조 1)부터 1875년(고종 38)까지 총 26건의 기사에서 등장한다. 개항 이후의 경우, 실록에서는 1886년부터 1901년까지 4건이 있으며 1901년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즉, 실록에 등장하는 31건의 기사 중 30건이 부유한 백성에 관한 기사이다. 개항기 신문에는 1886년부터 1900년까지 73건 중 67건의 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부민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기사 대부분은 부유한 백성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분석했을 때 1876년의 개항이라는 사건을 기점으로 부민의 존재 양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전통적 부민과 개항기 부민은 의미장 내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9세기 사료에 등장하는 전통적인 부민층의 경우, 가장 많은 사례는 바로 관리의 수탈이나 도적 떼의 약탈 등으로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로서의 부민이다(표 2). 즉, 부유한 백성에 관한 기사 97건 중 68건이 수탈과 약탈을 당하는 등 다양한 피해를 보는 부민층에 관한 기사이다.

25 본 논문은 유교적 부민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면서 『실록』의 사료 1건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가 있다. 차후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추안급국안』과 같은 자료와 여러 학자의 문집류까지 분석대상을 확장하여 보완하겠다.

〈표 2〉 19세기 사료 중 피해 유형별 '부유한 백성'의 기사 건수

	관리의 비위	범죄 피해	경비 부담	해의 사례	기타	합계
실록 중 부민 피해자	12	1	5		1	19
신문 중 부민 피해자	26	21		1	1	49
합계	40	21	4	1	2	68

주로 지방관이 사법권을 악용해 허위로 강상죄나 잡기, 음행 등의 혐의를 허위로 씌우고 부민에게 뇌물을 받고 풀어주거나, 강제로 원납전을 부여하여 받아내거나, 생일 등의 행사에 초청해 선물을 뜯어내거나 토목공사 비용을 핑계로 강제로 돈을 내도록 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부민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외에 지방대나 상무사 소속 두령이나 공무원이 비슷한 수법으로 사사로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민을 수탈했다.

비슷한 경우로 관아의 경비를 강제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강제로 항입 등을 맡겨 경비의 일부분을 억지로 담당하게 하거나, 구휼을 위한 권분(勸分)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곡식을 나눠주도록 하거나 전곡을 빼앗기기도 했다. 이밖에 방방선을 개조하거나 개삭하거나 훈련원의 배를 마련할 때 부민을 장수나 선주로 차출해 비용을 감당하게 하거나, 중국 칙사 접대를 부민에게 강제로 돕게 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

범죄로 인한 부민의 피해 유형은 치안의 부재로 도적떼가 부민의 집에 쳐들어와 재산을 약탈했다는 기사가 17건으로, 이중 홍경래의 난 당시에 반란군에 의해 쌀을 빼앗겼다는 기사와 1900년에는 부민의 재산을 빼앗아 빈민에게 나누어준다는 활빈당(活貧黨)에 의한 약탈 피해가 9건이 눈에 띈다. 이외에 보부상이 무리를 이루어 비밀 칙지를 위조해 부민의 돈을 빼앗거나 관인이라 사칭하고 부민을 강제로 잡아가 돈을 빼앗으려 했던 사건 등이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로서 부민은 대개 공권력의 비호를 받지 못해 도적떼에게 재산을 빼앗기거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수탈당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들

은 개항 이전부터 계속 피해를 봐왔으며, 개항 이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러한 구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이들이 전통적인 부민들은 권력과 거리가 먼 향반지주나 서민지주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실제로 조선후기 권분의 사례를 보면 조선 후기에 권력이 있었던 양반지주들은 수령이 건드리지 못해 권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향반지주와 서민지주는 강제로 권분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²⁶ 이후 개항이 되고 신분제가 폐지되는 갑오개혁을 지나서도 여전히 부민층은 수탈과 약탈의 피해자로 존재했다는 점에서 향반지주나 서민지주라는 부민층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이들은 조선후기 향촌지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계층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²⁷ 그렇기에 부민이 재산을 내어 빈민을 구휼하는 일을 도왔다는 사례가 있고, 구휼 정책에 조력자로 참여시키자는 논의에 등장하기도 했다. 물론 권분 자체는 부민에게 강제하는 폐단이 심각해서 1829년(순조 29)에 금지되었지만, 조정에서 구휼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면 매번 재론되는 정책이었다. 이런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부유한 백성들에게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하자는 논리가 동원되었다.

1895년(고종 35)에 동학농민전쟁 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구휼을 건의하는 상소도 그런 사례이다.²⁸ 기사내용을 보면 동학농민전쟁 당시 황해도와 평안도는 일본군의 도움을 받아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았으므로, 요민(饒民)에게서 먹고 남는 곡식을 걷어 빈민에게 나눠주었다가 가을에 이자 없이 원곡만 갚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건의하였다. 정석오는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고자

26 이세영(2009), 「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역사문화연구』 34, 214~217쪽.

27 오영교(1986),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식이활동」, 『학림』 8, 45~46쪽 각주 120번.

28 『고종실록』 32년(1895) 3월 22일. 「정석오가 백성들의 살림을 마련해 주는 방책에 대하여 상소를 올린다」.

“넉넉한 사람은 구차한 형편을 구제한 은혜를 베푼 것으로 되고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가난한 사람과 넉넉한 사람이 마음을 합치고 위아래가 화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富者有周窮之惠, 貧者有含恩之心, 貧富得合, 上下雍睦矣』”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교의 도덕윤리에 따른 호혜와 재분배를 추구하고 있다.

〈표 3〉 『고종실록』 중 정석오 상소에 나온 부민 개념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民惟邦本, 本固邦寧, 制民之產, 民產之急務, 務農, 本性, 富者有周窮之惠, 貧者有含恩之心, 貧富得合, 上下雍睦	富民之貯穀, 穀主, 抄出饒民食餘之穀, 分排畫給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前副正字 鄭錫五, 上疏 黃(黃海道), 平(平安道)	小民失業, 民無恒產, 放肆邪侈, 東徒, 南學, 遊食失業, 貧民無農糧, 生殖之弊

이러한 내용을 의미장 내에 배치해보면 〈표 3〉과 같다. 즉, 통합관계에서 직접 권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권분과 유사하게 ‘분배해 나눠주자[分排畫給]’는 표현이 있다. 계열관계에서는 지향점으로 ‘마음을 합치다[得合]’와 ‘위아래의 화목[雍睦]’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백성의 생업을 제정해준다[制民之產]’거나 ‘농업에 힘쓰다[務農]’ 등 경세론에 근거한 언표들이 보인다.

이 밖에 『황성신문』 논설에 나온 개혁 방안 중에 병전(兵典)에 관한 개혁을 제안하면서 부민에게 명해 집에서 말을 기르게 하고 사적으로 목장을 세워 번식시키는 자는 무반 정직으로 임명하지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²⁹ 이외에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이 경도에서 부민들이 의죽창(義粥廠)을 열어 빈민을 구휼하는 광경에 대한 보고가 실록에 나오고,³⁰ 상무사(商務社)의 부상

29 『황성신문』 1899년 8월 4일. 「戶典六條는 一日敎民이니」.

30 『현종실록』 6년(1833) 3월 25일. 「사신 이정리가 중국의 구휼 제도와 서양과의

(負商) 중 지원한 부민에게 먼저 지원을 받아 임원의 월봉을 지급하거나,³¹ 철도 건설 비용을 부민에게 물리자는 논의가 있기도 했다.³²

이처럼 부민은 피동적으로 조정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는 형식이기는 했지만, 전곡을 내어 구휼을 돕거나 재정이 필요한 공적인 사업에 재정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참여시키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의미장 내에서는 유교적 도덕윤리와 경세론에 근거한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참여 혹은 논의는 '먼저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친다'는 유교적 부민 담론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으며, 또한 유교적 부민 담론이 19세기 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그러나 모든 부민이 피해만 보거나 순순히 협력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 지배 질서에 반대하여 반란에 가담하거나 이익만을 탐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반란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흥경래의 난 당시 반란에 가담한 청북의 부민 이희저(李禧著)이다.³³ 이외에도 광양의 부민 강창일이 반란을 준비했고, 정덕기가 부민과 결탁해 반란을 준비했다는 기사가 있다.³⁴ 이 사건들은 부유하지만 권력에서 소외되어있던 부민들이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한 사례이다.

정책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양상에 대해, 박규수는 화폐정책에 대해 아뢰면서 부민에게 돈을 주조하여 세금을 바치도록 했다가 질 나쁜 돈(濫惡之錢)이 유통되어 물건값이 오르자 주전로를 설치한 이들만 이때를 보아 이익을 보았다고 했다.³⁵ 좌의정 이최응이 '경강의 부민들이 세금의 방

관계를 아뢰다」.

31 『황성신문』 1899년 7월 13일. 「負商組織」.

32 『황성신문』 1899년 8월 12일. 「부민비중」.

33 『순조실록』 11년(1811) 12월 20일. 「평안 병사 이해우가 밀계하여 가산 다복동의 균병 움직임에 대해 보고하다」.

34 『순조실록』 19년(1819) 7월 18일. 「추국을 행하고 죄인들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단하다」 ; 『고종실록』 5년(1868) 8월 3일. 「죄인 정덕기 등을 부대시참에 처할 것을 아뢰다」.

납에 관여하고자 맨손으로 내려가서 환전받고 육로로 올라오고 있으니 이들을 처벌하자'라고 건의하는 기사도 있다.³⁵ 이는 유교적인 기준에서 공적인 세금 문제에서 사적인 이익[私利]의 추구만을 일삼는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지만, 역으로 부민들이 윤리나 법에 신경 쓰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개항 이전의 부민 개념의 의미장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부민 개념은 도덕적 교화라는 이상적 목표와 안민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 유교의 경세 담론 내에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감세와 절용이었다. '부유한 백성'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 구휼 등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조력자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먼저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치자'는 부민 담론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 부민은 권력자의 수탈과 도적떼의 약탈에 의한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었고, 심한 경우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항하기도 했다. 이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논의와 '부유한 백성'에 대한 취급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간극을 보여준다.

Ⅲ.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

1. 개항기 부민론 개념

개항 이후에도 여전히 유교적 부민 담론이 영향이 남아있는 사례가 보이지만, 개항이라는 사건과 이후 일어난 변화가 의미장 내에 반영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1884년 5월 25일 『한성순보』에서 『만국공보(萬國公報)』의

35 『고종실록』 11년(1874) 1월 13일. 「우의정 박규수가 청나라 돈의 폐지 이후의 일들에 대하여 아뢰다」.

36 『고종실록』 12년(1875) 2월 5일. 「좌의정 이최응이 사용원의 부제조에 종친, 승지 등을 임명할 것을 청하다」.

사실을 인용한 「부국설 상(富國說上)」에서 처음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는 부민 개념이 등장한다(표 4).³⁷

〈표 4〉 『한성순보』 「부국설 상」 기사에 나오는 부민 개념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富強, 王業, 民生, 生財有大道, 富之道, 通商	足國之道, 富而後教, 民可使富, 富民爲本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周禮』, 孔子, 孟子, 『大學』, 中國, 『萬國公報』	王道, 不強, 遊惰, 廢人

의미장을 분석해보면 통합관계에서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친다(富而後教)'라는 표현이, 계열관계에는 '왕업' 등 유교적인 언표들이 나오고 있지만, 통상이 부민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기사 중에 "부강에 관한 설은 비록 왕도를 논하는 이들이 말하지 않는 바(富強之說雖爲講王道者所不談)"라고 하면서 '왕도'는 도리어 부강과 부민의 기능적 반의어로 나타나고 있다. 즉, 유교적 부민 개념에서도 보이는 언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목적이 왕도와 같은 유교적 가치가 아니라 국가의 '부강'으로 대체되었고, 부민의 수단으로 통상이 들어오는 양상을 의미장의 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부민'은 '국부민은(國富民殷)', '국부민강(國富民強)', '유국부민(裕國富民)' 등 국가와 백성이 짝을 이루는 표현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보이는 재배치 양상은 개항 이후 중국을 통해 접하게 된 서구 학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성순보』는 이 기사의 출처를 『만국공보(萬國公報)』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김경수가 1879년에 편찬한 『공보초략(公報抄略)』에서 가져온 기사이다.³⁸ 또한 이 『공보초략』의

37 『한성순보』 1884년 5월 25일. 「富國說上」.

38 김경수는 1818년(순조 18)에 태어난 역관으로 한어를 전공하여 청나라 사행의 역관으로 활동하였다. 1870년대에는 강위(姜璣)를 중심으로 결성된 육교시사(六橋社)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공보초략』은 중국에서 1869년부터 1876년까지 발간된 『교회신보』와 『만국공보』의 기사를 선별하여 간행한 저술이다. 자세한

기사는 기독교 선교를 목적으로 창간된 『교회신보(教會新報)』 204호(期)에서 재인용한 내용이다.³⁹ 이 『교회신보』에 수록된 기사들은 청나라에서 19세기 중 후반에 한역되어 간행된 ‘서학서’와 정기간행물을 출처로 하고 있다.⁴⁰ 즉, 1884년 『한성주보』 논설에 나오는 부민 개념은 중국에서 서학서를 번역하고 이를 조선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김윤식은 영선사로 청나라에 갔다가 1882년에 한역된 경제학 교과서인 『부국책』을 접했다. 이 책은 헨리 포셋(Henry Fawcett, 法思德)이 지은 경제학 교재 『Manual of Political Economy』가 원본으로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丁隴良)이 경사 동문관 부교습 왕평자오(王鳳藻)에게 번역을 의뢰하여 1880년에 발간한 책이다.⁴¹ 김윤식은 청나라에서 이를 직접 접했으며, 이후 청나라 관료 뤼핑루(羅豐綽)와의 대화에서 “서양인들의 이재(理財)는 반드시 부민을 우선하여 백성이 부유해지면 나라도 따라서 부유해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⁴² 이 발언에서도 부민의 목적이 부국으로 대체되었으며, 방법론도 절용에서 식산으로 변화하였다.⁴³ 이처럼 중국을 통해 서구의 학문, 특히 경제학 등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 서구의 학문이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이후 신문에서 ‘백성을 부유하게’라는 뜻의 부민 개념이 신문 기사에 보이는 시점은 1899년으로 『황성신문』의 논설 4건과 1900년의 광고 1건이다. 『한

내용은 백옥경(2012), 「개항기 역관 김정수(金景逵)의 대외인식-『공보초략(公報初略)』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1 참고.

39 이상재(2017), 『《漢城旬報》구성의 연원과 학술기사의 재구성 양상』, 서울대 석사논문, 42쪽.

40 이상재(2017), 앞의 논문, 24쪽.

41 이현창(2008),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개념과 소통』 2, 152~153쪽.

42 김성배(2009), 앞의 책, 301쪽, 204쪽.

43 김성배(2009), 앞의 책, 299~304쪽.

성순보』에 실린 1884년 사설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점으로, 그 사이 1894년의 갑오개혁을 통한 제도적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치적으로는 1896년에 독립협회가 세워지고 1897년에 대한제국이 수립되었으며, 1898년에는 만민공동회 운동이 열리기도 했다. 경제학 분야도 1895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경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국내에서도 적극적으로 부국강병을 위한 경제학을 공부하던 상황이었다.⁴⁴ 즉, 1884년의 기사는 중국에서 번역한 기사로 엄밀히 말하면 중국의 변화가 조선에 소개된 것이라고 평할 수 있지만, 1899년의 기사는 조선에서 일어난 사회적 변화와 서구 학문을 수용한 결과로서 부민 개념의 의미장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황성신문 논설에 나오는 부민 개념의 의미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큰 변화는 두 가지이다. 첫째, 부민의 방법론이 기존의 경세론과 달라졌으며, 둘째, 교민과 부민의 관계가 역전되었다(〈표 5〉).

〈표 5〉 『황성신문』 중 논설에 나오는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正路, 學優登仕, 達事理, 百工居肆, 各勤其業, 身修家齊, 制民之產, 美利, 民의 利, 利源, 國富民強, 良策茂績, 富國, 理財, 開物成務, 化民成俗, 生財必有道, 財生民足, 帝王王霸의 道, 世界富強의 術, 財殖, 財生民足之術	梯山航海, 裕國富民, 通商, 金銀紙幣의 便利, 商務會社가 勃興, 工業振興, 裕國富民하는 大事業, 養民 新民 教民, 富民方策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甲午維新, 洪範十四條, 山林經濟, 汜勝之, 商鞅, 大韓, 孔子, 光武二年度各港口稅關의 進出口物貨,	迂路, 圖圖倖進, 舞文弄墨, 構虛捏無, 口蜜腹劍, 罔利墮斷, 遊衣遊食, 身不修 家不齊, 弱, 貧, 貧民無業한 者, 失職, 血脉이 盡枯, 皮毛가 俱落, 日殘, 養民이 不備, 民縮枵腹之弊, 民皆失職

유교의 경세론에서 부민의 방법은 감세와 절용이었으나, 이미 1884년의 논설부터 통상이 부민의 방법론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1899년의 논설에서는

44 김동노(2013), 「근대 초기 서구 경제학의 도입과 식산흥업론」, 『사회이론』 43, 272~274쪽.

통상뿐만 아니라 공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진흥이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의미장 내의 통합관계에 나오는 ‘통상’, ‘상무회사가 발흥’, ‘공업진흥’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행세, 행정, 통상, 제가 등을 길을 가는 것(行路)에 비유하여 ‘바른길(正路)’을 가자고 주장하는 논설인 「행로난」에서는 산 넘고 물 건너 나라와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것(裕國富民)이 통상(通商)의 바른길이라고 하면서 부민을 위한 통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⁴⁵ 이러한 경향은 다른 논설에서도 비슷하게 확인된다. 「제민지산(속)」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큰 이익(美利)의 추구를 지향하면서 부민의 방책으로 국가에서 농업과 공업, 상업의 진흥에 힘을 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工務)를 담당한 이들에게 공업의 진흥이 “나라를 풍요롭게 백성을 부유하게(裕國富民)하는 대사업”이니 속히 시행해야 ‘국부민강(國富民強)’할 수 있을 것이라 하고 있다.⁴⁶

그런데도 이를 정당화하는 언표는 유교의 도덕윤리와 경세론에 기반하고 있다. 계열관계와 기능적 반의어에 등장하는 바른길과 굽은 길(迂路)이라는 비유에 더해, 『맹자』의 내용을 인용해 이익을 독점하는 행위(罔利⁴⁷)는 굽은 길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은 도덕적 기준에 의한 비판이다. 이에 더해 계열관계에 등장하는 ‘수신’과 ‘제가’와 관련되어 ‘몸이 닦아져야 집안도 다스려진다(身修家齊)’라는 유교적인 언표가 등장하는데,⁴⁸ 이러한 성리학적 수양론과 통상이 나란히 배치되고 있는 양상은 통상과 산업진흥을 수기치인과 병치시켜 정당화하는 구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맹자』에서 나오는 ‘제민지산(制民之產)⁴⁹’이라는 언표와 더불어 ‘공업의

45 『황성신문』 1899년 2월 18일. 「行路難」.

46 『황성신문』 1899년 4월 25일. 「制民之產(續)」.

47 이 표현은 『맹자』 「공손추장구하(公孫丑章句下)」에서 한 졸장부(賤丈夫)가 시장에서 농단(壟斷)에 올라 시장의 이익을 망라(網利=罔利)하자 이로 인해 시장에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다.

48 『황성신문』 1899년 2월 18일. 「行路難」.

49 『맹자』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에 나오는 표현으로 백성의 생업을 제정

진흥이 가난한 백성과 직업이 없는 자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거나 '식량을 증산하고, 공업을 발달시키고, 수출을 증대시켜야 충분한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백성이 족하면 군주는 누구와 더불어 부족할 것인가"⁵⁰라고 하면서 유교적 민본주의에 근거한 경제론적 관념이 의미장 내에 존속하고 있다.⁵¹

교민과 부민의 역전을 보여주는 기사는 1899년 11월 25일의 논설이다. 내용을 보면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이재(理財)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백성이 직업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 방책이 양민(養民), 신민(新民), 교민(敎民)이라고 하고 있다. 즉, 국가의 부강을 위해 백성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는 유교의 경제론에서 먼저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친다는 유교적 부민 개념과 다르게 순서와 인과가 역전되었으며, 그 목적도 계열관계의 '부국', '국부민강' 등의 언표에서 보듯 국가의 부강으로 대체되어 있다. 즉, 이 시기의 부민론은 국가의 부강을 위해 백성을 부유하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백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내용도 유교적 도덕과 윤리가 아닌 근대 지식으로 대체되었다. 즉, '교민'에서 백성들이 '세계의 좋은 방법[世界良法]을 배워 먹고 살 방도를 배우고 이를 통해 공업의 이익을 진흥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신민(新民)은 '세계에 통행 되는 좋은 방법[通行良法]을 배우고 형편에 맞게 적용해 '개물성무 화민성속(開物成務化民成俗)'하여 백성들이 나아지도록 한다'라는 뜻이라고 하고 있다.⁵²

1900년의 「뽕나무 구매를 권함(勸買桑繭)」 광고에서 등장하는 부민 개념에서는 국가가 강조되고 개인의 영리 추구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

해준다는 뜻이다.

50 원문은 『논어』 「안연(顔淵)」에 나온다.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51 『황성신문』 1899년 4월 25일. 「制民之產(續)」.

52 『황성신문』 1899년 11월 25일. 「現今에 要富國인된 必理財오 要理財인된 必使民不失職호느니」.

다.⁵³ 즉, 양잠을 위한 뽕나무는 “한사람이 이익을 도모하는 산업이 아니라 한 나라에서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기본[非直爲一人營利之産業이라 抑亦爲一國富民之基本]”이라고 하면서 의미장 내에서 반대되는 뜻으로 자리잡고 있다. 물론 맹자의 오무택(五畝宅)이나 사마천子長의 식화전, 제갈량孔明의 성도전(成都田)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풍부하게할 근본[豐衣足食之本]’이라는 표현 등 전통적 유교의 민본주의적 경제론에서 나오는 언표를 끌어와 부민을 통한 국부의 추구를 정당화하는 양상은 같다.

〈표 6〉 『황성신문』 광고 중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寶藪奇種, 一國富強之策, 豐衣足食之本, 實業上, 殖利가 富盛發達, 功利	桑, 寶藪奇種, 一國富民之基本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蠶主, 蠶農, 孟子, 五畝宅, 子長, 殖貨傳, 晉陽治, 尹鐸, 孔明, 成都田,	一人營利之産業

이처럼 ‘백성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뜻의 부민 개념은 1899년 시점에서 의미장 내에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친다’는 논리는 역전되어 ‘가르쳐야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며, 가르쳐야 하는 내용 또한 산업을 진흥시킬수 있는 서구의 지식과 학문, 즉 ‘신학문’으로 변화했다. 그 지향조차도 정덕, 안민, 경제제민, 인정, 왕도정치와 같은 유교적 목표가 나라의 부강함이라는 현실적 목표로 대체되었다. 즉, 개념의 의미장과 배치는 이미 탈유교화되고 있었으며, 유교의 경제론과 도덕윤리에서 끌어온 언표는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의미장이 재배치되어 탈유교화되어가고 있던 개항기 부민 개념이 주로 보이는 자료가 동도서기론자인 김윤식과 관련되어 있거나 개신유학자들이 주

53 『황성신문』 1900년 2월 15일, 「昨年初夏間에 本社社員이 畿甸에 游覽한다가 楊州下道九仙洞에 一座蠶主을」.

축이 되어 간행한 『황성신문』의 논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즉, 동도서기를 주장했지만 이미 부민 개념의 의미장 내에서는 동도인 유교가 목표에서 배제되고 있었고, 개신유학자의 논설 또한 유교적인 요소는 언표일 뿐, 의미장은 탈유교화된 상태였다. 따라서 광무개혁을 '구본신참(舊本新參)'이 아니라 '신본구참(新本舊參)'이라 평할 수 있다면,⁵⁴ 동도서기론 역시도 부민 개념의 의미장을 통해 보면 유교적 언표는 이를 정당화하는 용도로만 쓰였을 뿐, 본질적으로는 근대국가를 지향한 '서도동기(西道東氣)'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⁵⁵

2. 개항기 부민층 개념

개항으로 서구와 접촉하고 갑오개혁 이후 신분제가 폐지되어도 '부유한 백성'들의 지위와 처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즉, 여전히 대부분의 부민은 권력과 도적에 의한 피해자였다. 그러나 개항 이후 자본주의적인 세계 무역 시장과 연결되고, 서구의 경제학을 비롯한 근대 지식을 수용하면서 일정 정도 변화가 생겼다.

먼저 직접적으로 해외의 부민, 즉 자본가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었다. 김윤식은 1890년에 「호부론(護富論)」에서 “서양 각국은 오직 백성을 부하게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는다.”고 하면서, “국가에 대사가 있으면 혹 부민에게 차관하는데 반드시 이자를 계산하여 상환하며 기한을 어길 수 없다고 한다. 철도, 전선, 공장 등의 대규모 사업도 종종 부민이 운영하여 세를 거둔다.”라고 소개했다.⁵⁶ 이러한 외국의 부민 사례는 근대의 '자본가'와 비슷하다고 볼

54 서영희(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10~111쪽.

55 동도서기론과 개신유학자 등에 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역량과 지면의 한계로 인해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 또한 부민 개념이 이들의 논의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적절한 개념을 선정하여 의미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동도서기론과 개신유학자를 기존 연구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56 김성배(2009), 앞의 책, 305~306쪽.

수 있다.

신문 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보인다. 『독립신문』 기사에서는 일본의 세입을 소개하면서 여러 세금 중에 부민세를 걷었다는 내용이 있다.⁵⁷ 『제국신문』의 논설에서는 외채 문제를 다루면서 “해외 강국의 경우 국채가 많으며 항상 증표를 만들어서 그 나라 부민들도 그 표를 사가지고 언제든지 그 표를 인연하여 돈을 갚게 한다”라고 하면서 국채를 사들이는 부민을 소개하고 있다.⁵⁸ 이처럼 부민이 경제주체로서 활동하면서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를 구입하는 등의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고종실록』의 1901년 기사에서도 중추원 의관 장석신이 가뭄피해를 구휼하기 위해 다시금 부민에 대한 권분에 대해 건의하고 있는데, “나라에 많은 비용이 요구되면 큰 상인이나 부자(富戶)들에게 꾸어 쓰는 것은 여러 나라에서 통행 되는 규례”라고 하고 있다.⁵⁹ 즉, 조정의 관료들도 서구의 자본가 개념을 접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상소문은 근대 경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론의 관점에서 “부자의 것을 털어서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는 방도(攄富濟貧之術)”로써 권분을 다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재원 마련 방식으로 공전(公錢)으로 부자에게 곡식을 사서 이를 환곡으로 나누어주고 나중에 다시 이자까지 걷는 방식으로 운영하자고 하고 있다. 이는 국채에 관한 서양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에도 나라가 국민에게 채권을 발행하여 돈을 빌린다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이러한 영향으로 부민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제대로 정책을 펴자는 주장들이 등장하고 있다. 1898년 『제국신문』 논설에서는 ‘나라의 형세가 빈약하고 놀고먹는 백성이 많은 이유가 백성에게 술업을 가르치지 못했고, 정부의 법률에 밝지 못해 서로 의심하기

57 『독립신문』 1897년 12월 16일. 「일본 전국 세입」.

58 『제국신문』 1898년 10월 15일. 「근즈에 국가에서 외국 사름의게 빚슬...」.

59 『고종실록』 38년(1901, 광무 5) 11월 1일. 「장석신 등이 한재 문제를 건의하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본이 있는 부민이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람에게 대한 신뢰가 없고 법률에 따른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산업이 쇠잔하고 놀고먹는 백성이 없어질 수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정부에서 경제주체로서 부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인민을 교육하고 사법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⁶⁰ 1899년의 논설에서도 '국고의 돈을 내고 부민의 힘을 아울러 외국 기계를 운용하여 그 이익을 얻으면 민생도 나아지고 나라의 세입도 넉넉해질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⁶¹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연결되면서 부민의 행태에도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 바로 '무곡(買穀)', 즉 곡물 거래와 관련된 기사에 부민들이 등장하고 있다. 일본인이 곡식을 많이 사가면서 생기는 갈등에 관한 기사나,⁶² 서울에서 내려간 차인과 해주군의 부민 2명이 무곡하여 해주군민은 돈이 있어도 쌀을 살 수가 없어 소요가 일어난 사건과⁶³ 1900년 가흥의 일본 병참소에서 일본인이 부민에게 쌀값을 반절만 주고 억지로 쌀을 사들인 사건⁶⁴ 등이 관련 갈등에 관한 기사이다. 즉, 개항 이후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시장과 연결되면서 생필품인 곡물이 '상품'으로 취급되는 양상과 일본 상인과 조선의 부민이 곡물을 과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비도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가난한 청백리와 손님의 문답을 빌어 유교적 윤리관에 근거해 당대의 부민들을 비판하는 기사도 보인다.⁶⁵ 제목인 「爲仁不富」는 『맹자』의 구절을 따온 내용으로 仁과 富는 함께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내용은 현

60 『제국신문』 1898년 12월 27일. 「나라형세가 빈약하고 백성의 산업이 도…」.

61 『제국신문』 1899년 2월 17일. 「대학전에 글으되 덕이잇스면 이사람이잇…」.

62 『매일신문』 1898년 4월 14일. 「장흥 고을에 일본 상인들이 곡식을 무역홀씩 흥 부민에 쓸을」.

63 『독립신문』 1898년 4월 23일. 「황해도 해주에 민요 낫다는 일을 자세히 탐문 흔즉」; 『매일신문』 1898년 4월 23일. 「희주군 읍근쳐 저주에 곡식이 나지 아니하야 읍등 백성이 돈을」.

64 『제국신문』 1900년 6월 12일. 「충청북도 가흥 일본 병참소에서 일인이…」.

65 『황성신문』 1899년 10월 30일. 「爲仁不富」.

재는 부민을 다스릴 바른 법도 없고, 부민은 부유하지 않으면 상대도 하지 않으며, 수십만 냥의 돈으로도 죄에 대한 책임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죄를 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표 7〉). 의미장으로 보면 부민의 계열관계에는 부정적인 가치들이, 기능적 반의어에는 연결, 안빈 등 긍정적인 표현들이 배치되어 있다.

〈표 7〉 『황성신문』 중 부정적 부민 개념의 의미장

계열관계	통합관계
不孝不悌, 多牛多田, 黷錢, 犯罪, 富貴, 罪責	富民
역사적 사실	기능적 반의어
前 西道 某郡守, 友人	政法, 廉潔, 安貧

이러한 기사들은 부민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제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정치적·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1898년에는 부민의 자제들이 지방에서 권력을 얻고자 뇌물을 바치고 지방대 병정으로 들어간다는 기사가 있다.⁶⁶ 이 자제는 부정적인 보도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집단인 지방대에 의탁해 재산을 지킬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독립협회를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했다. 즉, 평양부 독립지회에서 근처 부민에게서 만민공동회 비용을 위한 의조금을 걷었다는 기사가 있다.⁶⁷ 독립협회 지회가 보부상의 조직인 상무사처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었기에 여기에 참여한 부민들은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자원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6 『매일신문』 1898년 6월 4일. 「황주군으로 조차 오는지 말하되 황주 지방의 병정은 이당하는」.

67 『황성신문』 1898년 12월 19일. 「巨額補助」

이러한 이들의 행동은 1890년 이후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기독교 수용을 주도한 계층에는 몰락 양반이나 향반과 같은 하층 양반과 재산을 모으는 데 성공한 중인과 부민이었다는 점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⁶⁸ 즉, 부민들은 개항 이후 권력의 수탈에 의한 피해자이자 피동적인 조력자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변화해가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해가며 나름의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민층의 지위나 현실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신학문'이 소개되면서 서구의 자본가를 부민으로 소개하는 사례가 있으며 경제주체로서 부민이 주목되었다. 또한 개항과 이후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대변화에 적응하려는 양상도 관찰된다.

IV. 결론

'부민'이라는 개념은 '백성을 부유하게'라는 뜻과 '부유한 백성'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는 롤프 라이하르트(Rolf Lieberth)의 사회사적 의미론에 입각한 개념사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부민'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해 시기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부민 개념은 도덕적 교화라는 이상적 목표와 안민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써 유교의 경세 담론 내에 있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론은 감세와 절용이었다. '부유한 백성'에게 자신의 재산을 내어 구휼 등 재정이 필요한 사업에 조력자로 참여하도록 하자는 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도 '먼저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치자'는 부민 담론의 영향 아래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사례에서 부민은 권력자의 수탈과 도적떼의

www.kci.go.kr

68 송현강(2006), 「한말 기독교수용주도층의 존재와 그 성격-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19~25쪽.

약탈에 의한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었다.

반면 개항기 부민 개념의 의미장은 탈유교화된 양상을 보인다. ‘백성을 부유하게 한 뒤에 가르친다’는 논리는 역전되어 ‘가르쳐야 백성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었으며, 가르쳐야 하는 내용 또한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신학문’으로 변화했다. 또한 부민의 지향조차도 정덕, 안민, 인정, 왕도정치와 같은 유교적 목표가 나라의 부강함이라는 현실적 목표로 대체되었다. 유교의 경세론과 도덕윤리에서 끌어온 언표는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개항기 부민층의 지위나 현실도 전통적 부민층과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서구의 자본가가 부민으로 소개되고 경제주체로서 부민이 주목되었다. 또한 부민층이 개항과 이후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시대 변화에 적응하려는 양상도 관찰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백성을 부유하게’ 하자는 논의와 ‘부유한 백성’에 대한 취급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성을 부유하게 하는 노력이 성공한다면 결과적으로 부민처럼 ‘항산(恒産)’을 가진 계층이 늘어날 것이고, 비로소 이들이 ‘항심(恒心)’을 가지도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유교 경세론의 논리구조이다. 그러나 현실의 부유한 백성은 관리에게 수탈당하고 도적에게 약탈당하는 피해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심지어 개항 이후 여러 차례의 개혁을 거친 19세기 말까지도 이런 처지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또한 개항 이후 의미장 내에서 부민의 목적과 수단, 논리구조가 변화했음에도 여전히 공자, 맹자 등의 발언이나 『주례』나 『대학』 등 유교경전에 나오는 표현들과 민본주의적 관념을 내포하는 유교적 언표를 활용해 부민을 통한 나라의 부강을 추구하자는 논의를 합리화·정당화하고 있다. 이는 ‘경제’라는 번역어의 채택과 수용이 경세론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맥락과 같다고 할 수 있다.⁶⁹

69 이현창(2015), 앞의 책, 121~131쪽.

이상의 연구는 개념사 방법론을 통해 부민이라는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현재' 즉, 개항기 사회에 일어난 변화가 언어와 인식에 반영된 양상을 추적하고 이를 통해 개화를 둘러싼 담론과 개항기의 유교 인식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단초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본 논문은 부민 개념의 의미장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가 제한적이었다.⁷⁰ 이로 인해 통시적인 변화 양상을 추적하기보다는 특정 시점에 국한되어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의미장 변화의 원인이나 영향 등에 관해 개항기를 다룬 기존 연구의 맥락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단면적으로 서술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차후의 연구를 통해 분석 대상 자료를 확대하고 1900년 이후까지 시기를 확장하고, '안민(安民)' 처럼 부민과 인접한 다른 여러 개념의 의미장을 검토해보는다면, 한국의 근대가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유교문화' 혹은 '유교적인 것'의 변화 혹은 생성과정과 한국 근대사회에서 유교가 탈영토화된 과정에 대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70 예를 들어 개항 이전의 부민론의 경우, “당파별(또는 당파별 대표 논자) 입장, 북학 계열의 논의, 19세기 민란기 대응 논리 등”에 대한 분석이, 개항기 부민론에 관해서는 “개화파 인물들의 글, 갑오개혁기 군국기무처 의안을 비롯한 개혁안, 각종 상소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위원의 조언이 있었다. 이는 개념사 연구에도 적용되는 타당한 지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반영하지 못했다.

【참고문헌】

『논어』 『맹자』
 『순조실록』 『헌종실록』 『고종실록』
 『독립신문』 『매일신문』 『제국신문』 『한성순보』 『황성신문』

김동노(2013), 「근대 초기 서구 경제학의 도입과 식산흥업론」, 『사회이론』 43.
 김성배(2009), 『유교적 사유와 근대 국제정치의 상상력 - 구한말 김윤식의 유교적 근대 수용』, 창비.
 김영호(2009), 「근대한국의 부국강병 개념」,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김태명(2008), 「관자의 정치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5-3(11).
 나인호(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박문현(2009), 「회남자(淮南子)의 무위의 정치사상」, 『통일전략』 9-3.
 백옥경(2012), 「개항기 역관 김경수(金景逵)의 대외인식 - 『공보초략(公報抄略)』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41.
 서영희(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송현강(2006), 「한말 기독교수용주도층의 존재와 그 성격 -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안외순(2016), 「『논어(論語)』에 나타난 정치 관념」, 『동양문화연구』 24.
 안용진(2008), 「荀子の 富國論과 租稅觀 研究」, 『유교사상문화연구』 33.
 오영교(1986), 「조선후기 지방관청 재정과 식이활동」, 『학림』 8.
 오청식(2018), 「『서경(書經)』의 ‘천명(天命)’과 『관자(管子)』의 ‘무시(務時)’의 상관 관계 연구」, 『동양학』 73.
 윤대식(2013), 「예의(禮義)와 염치(廉恥)의 정치 - 『管子』에 내포된 예법(禮法) 검토」, 『동양정치사상사연구』 12-1.
 _____(2017), 「관중(管仲)의 국가책무 기획 - 온정과 통제의 경계 짓기」, 『공자학』 32.
 이상재(2017), 『『漢城旬報』구성의 연원과 학술기사의 재구성 양상』, 서울대 석사 논문.
 이세영(2009), 「조선후기의 勸分과 富民의 실태」, 『역사문화연구』 34.

- 이현창(2003), 「유학 경제사상의 체계적 정립을 위한 시론」, 『국학연구』 3.
- _____(2008), 「Political economy와 Economics의 개념과 번역」, 『개념과 소통』 2.
- 이현창(2015), 『경제·경제학』, 도서출판 소화.
- _____(2018), 「문화개방 이전 동아시아의 경세제민학(經世濟民學)」, 『한국실학연구』 36.
- 임현규(2013), 『소유의 욕망, 이(利)란 무엇인가-유가 경전에서 배운다』, 글항아리.
- 황규선(1995), 『荀子 禮思想에 關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왕대별 해제 : 제 26대 고종실록”

- <http://sillok.history.go.kr/intro/haejae.do>

대한민국 신문 아카데미 - <https://nl.go.kr/newspaper/>

Abstract

A Study on Changes in the Semantic Fields of
'Bumin' Concep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Focusing on Newspaper Media during the
Open Port Period—

Mun Gyeong-deuk*

The concept of 'bumin' has both meanings, which include 'making the people rich and wealthy' as well as 'rich and wealthy peopl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mantic fields of the concept by applying Rolf Reichardt's methodology of conceptual history to such concept.

First of all, the 'bumin(富民)' concept of 'making the people rich and wealthy' belongs to Confucian governance theory as the means to the ideal goal of moral edification and enlightenment as well as the realistic goal of the people's welfare. The concrete methodology of such concept was tax reduction and frugality. In order to make 'rich and wealthy people' contribute their property to participate in financial projects such as relief work, the 'bumin' theory of 'making the people rich and wealthy first and educating them later' was applied. However, in many cases, 'bumin' emerged as victims to powerful mens' exploitation and thieves' plunder.

www.kci.go.kr

*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of Classical Studies of Korea in Jeonju University

In contrast, the semantic fields of 'bumin' concept during the open port period seem to be de-Confucianized. The logic of 'making the people rich and wealthy first and educating them later' was reversed into the logic of 'first educating the people to enable them to be rich and wealthy later'. In addition, the contents to be educated were changed into Western knowledge and science to be able to promote industries. Furthermore, the goals of 'bumin' were replaced from Confucian goals, including righteous virtue, the people's welfare, sympathy, and royal politics, to the realistic goals of national wealth and power. The statements derived from Confucianism's governance theory and moral ethics were presented only as the grounds for justifying these goals. Although the position and reality of 'bumin' class during the open port period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traditional 'bumin' class, Western capitalists were introduced as 'bumin' class and 'bumin class' was considered as economic actors. Additionally, 'bumin' class tried to actively respond to reforms and adapt to the changing times.

In light of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there were deep real gaps between the logic of 'making the people rich and wealthy' and the treatment of 'rich and wealthy people'. Also, even though there were modern changes in 'bumin' class's purposes, means, and logical structures within the semantic fields, the logic of pursuing rich and powerful nations was still rationalized and justified by utilizing Confucian statements.

Key word : conceptual history, Confucianism, governance theory(經世論), administering the state to relieve the people's suffering(經世濟民), de-Confucianization

논문 투고일: 2020. 10. 31 심사 완료일: 2020. 12. 11 게재 확정일: 2020. 12. 14

